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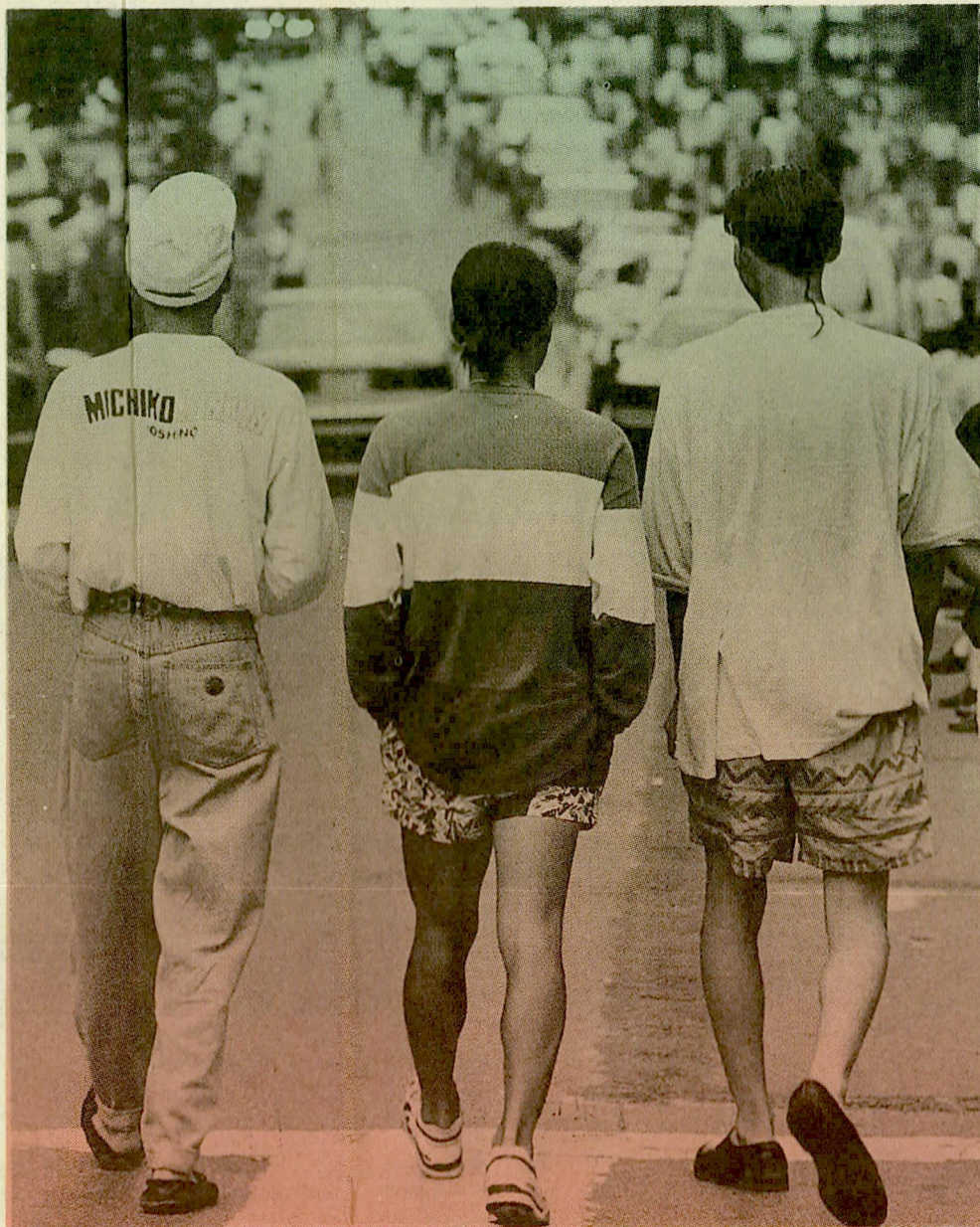
입맛-취향 맞아 '신문화' 즐겨요

과거 잊지않지만 '감정의 벽' 쌓을 이유 없어



<19>

日本觀



日本新세대의 머리모양과
복장 그대로인
10대 청소년들이 서울거리를
누비고 있다.
『국제화 사회인데
왜 일본유행을 따르면
안되는가』라고
그들은 항변한다.

기성세대 二重的 태도가 더 큰 문제

본면 일본문화일 때가 많다는
거조』 서울S고교 金津杓(1년)
의 얘기다.
그는 팔공을 듣는 것이나 일
본노래를 듣는 것이나 외국곡
을 듣는다는 생각에는 별 차이
가 없다고 말했다. 오히려 일
본가요중에 우리곡과 비슷한
부위를 풍기는 것이 많아 친
숙하다는 것이다.

(서울Y고1년)는 『학교에서는
일본제품을 쓰지말라고 가르치
지만 일제를 모방해서 돈버는
사람들』 사실 기성세대가 아
니냐고 꼬집었다. 그것도 제
대로 모방하지도 못한다고
들들 이해할 수 없다고 날카로

을 한 李喆熙(32)의 얘기.
『일본에 가기 전만 해도 일본
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관이 있
었다. 그런데 가서 보니 굉장
히 친절하고 정직하며 배울만
한 점이 많은 사람들이었다. 우

리 가 과거 북한 사람들을 빨달
린 도깨비로 배웠듯이 일본의
대해선도 잘못 배운 면이 적지
않은 것 같다』
그는 일본을 객관적으로 분
석해서 배우고 싶을 만큼 일본을 찾
아 한다고 말한다. 감정적으
로 반대 虎口만 잡으려는 것은
시대 못 지킨다는 의견이다.
지난달 한일학생 교류행사의
일환으로 일본 대동문화대학
생 27명과 만안고려대 및 동문
(21·일본학 33명)이 『만나고
뽀글』 같은 인간이란 때 이렇게
말했다.

『국제화 반영 일본인』
단지 수입CD는 1만5천원
이면 사느니 일본제품은 거
의 두배밖에 사는 것이 차이라
고 했다. 수입제품이 들어와
서 편하긴 하지만 그다지 주장
이 아니다.
서울 압구정동과 대학가의
노바다야키텍에 젊은이들이 드
나들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에
대해 터무니없어하기도 한다.
『그럼 맨노발에 앉아서 햄
버거를 먹으면 친미패국노이고
노바다야에서 모뎀포기를 먹

신세대는 과거 일본이 저지
른 잘못에만 매달리는 기성세
대에 오히려 비판적이다.
『지난해 장안의 화제를 모았
던 『드라마』 연명의 논쟁자』를
봤을 때도 잠깐 분개했다. 금
방 50여분만 『沈美愛』 20
·50대분과 20년.
적어도 지 못한 과거가 피부
에 와 닿지도 않을 뿐더러 분개
하고 욕한다고 해서 현재의 우
리에게 득될 것도 없지 않나
고 반문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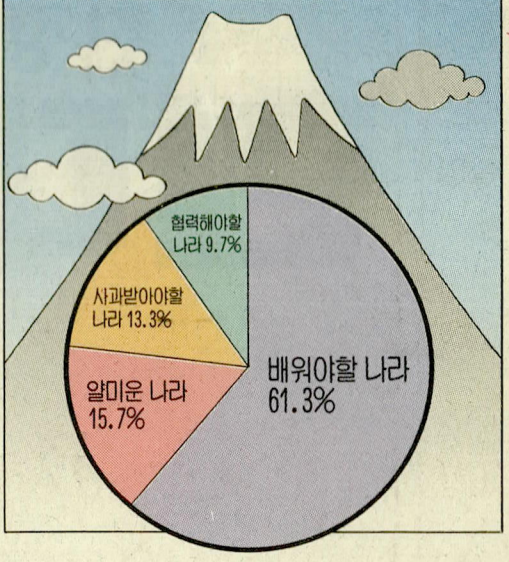
『신세대가 일본을 긍정적
으로 보는 것은 그만큼 자
신감이 있다는 의미입니
다. 일본을 감정의 양극이
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
됐다』
金泰鎮 前고려대교수(일
문학)는 국제화 국제협력
의 시대를 맞아 신세대의
이같은 對일본관의 변화는
반가운 일이라고 평가했
다.
『진정한 동반자적 한일관
계를 정립하려면 감정적
벽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
요합니다. 피해자라는 민족
감정에만 얽매었다면 더이
상 대등해질 수 없기 때문
이지요』
金전교수는 신세대들이
일본문화에 접하는 것은
이같은 자부심에 비하면
지엽적인 문제라고 말했
다. 또 일본의 실체를 알
고 그 바탕위에서 선별적
으로 즐긴다면 문제삼을 것
이 없다는 의견이다.
『일본인의 좋은 점중에서
도 공을 중시하고 나를 뒤
에 놓는 자세는 배워야 한
다』는 것이 金전교수의 지
적이다. 우리나라의 부정



金泰鎮 前고려대교수

“日실체 정확히 알아야”

일본에 대한 이미지조사



서울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日本을 「장점을
알고 배워야할 나라」로 여기고 있다. 이에비
해 「과거 역사에 대해 사과를 받아야할 나라」
라는 의견은 13.3%에 불과, 과거보다 현재의
日本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.
이같은 사실은 개그맨 이흥렬씨의 「사요나

“지난歷史 사과 받아야” 13.3%

라 개그나라」출판과 관련, 도서출판 자작나
무가 현대리서치에 의뢰하여 서울거주 15~39
세 남녀 3백명을 대상으로 한 「日本의 이미
지조사」에서 드러났다.
日本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은 「교과서」의
영향력에서 벗어난 20대 초반과 후반에서 특히
두드러졌으며, 10대와 30대에서 상대적으로
작은 반응이었다.